

전주시, '책 한 권에 담긴 나눔의 가치'

책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 '함께라서' 순항... 도서 나눔·시민 서재 개방 등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 추진

책의 도시 전주에서 지역 서점들의 자발적 기부와 시민들의 서재 개방이 이어지며 지역사회 전반에 따뜻한 독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책이 삶이 되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책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인 '함께라서(書)'가 순항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함께라서' 프로젝트의 8개 핵심 과제를 통해 단순한 독서를 넘어 시민과 지역의 책 생태계와 함께 나눔과 기부, 여행이 결합된 차별화된 콘텐츠로 '책의 도시 전주'의 브랜드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올해 '함께라서' 프로젝트는 먼저 시민 주도의 공유 문화를 위해 개인의 서재를 개방하는 '전주시민서가'가 첫 테마로 꼽혔다.

시는 지난달 23일 신정일 사단법인 우리땅길기 이사장이 소장한 3만여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개인서재를 '제1호 전주시민서가'로 지정하고, 지난달 31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서가지기가 들려주는 서재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러한 '서가지기가 들려주는 서재 산책'은 매일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전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중학생들이 한 지식인의 삶이 녹아든 서재를 탐방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지혜의 숲 탐방기'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시민서가'를 통해 시민들이 숨겨진 지식의 창고를 발굴하고, 인문학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공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서가지기가 들려주는 서재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시는 지난달 28일에는 송천도서관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 보호의 가치를 독서에 담은 '지구 책장' 북플리마켓을 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다 읽은 책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중고 도서 판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참여형 행사로 꾸며져 자원 순환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이 프로그램을 5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만의 독특한 도서관 여행과 독서를 연계한 전주형 북스테이인 '전주서(書) 스테이'도 오는 16일부터는 본격 가동된다.

반나절 코스인 '책나절 코스'는 회당 10명으로 진행되며, 음악·빵·가치 등을 테마로 5~10월 중 총 4회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책나절 코스는 △

책과 문장(5월 15일, 동문헌책도서관과 금성당) △책과 가치(6월 19일, 서학예술훈민도서관과 지향집) △책과 음악(9월 18일, 다가여행자도서관과 해결리스닝룸) △책과 빵(10월 16일, 한옥마을도서관과 도우베이커리)을 주제로 진행돼 전주에서 경험하는 색다른 오우를 즐길 수 있다.

'1박2일 체류형 코스인 '책한반 코스'의 경우 회당 2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2회에 걸쳐 책 읽는 숙소인 북엔터프 호텔에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오는 16일과 17일에는 동네책방 '일요일의 침묵' 대표와 함께 '리딩파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는 9월 10일과 11일에는 동네책방 '그 옆에 가게' 대표와 함께 '바움박셀' 시간을 갖는다. 또, 개별 북스테이 공간에서 오후이 책에 집중하는 사색의 밤과 도서관 여행을 운영해 책 읽는 숙소와

동네책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시는 독서 소외계층과 단체에 책을 선물하는 '서(書)프라이즈'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심의를 통해 고흥사람기금 300만 원을 재원으로 확보했으며, 이달 중 조순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100명을 선정해 연령별 맞춤형 도서와 신간,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담긴 메시지 카드를 '서프라이즈박스'에 담아 정기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도서를 기부받아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 등 도서가 필요한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독서습관 함양과 정서적 지지를 강화한다.

지역 서점 활성화의 상징인 전주책사람포인트 '책풍20'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서점들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8개 협약 서점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성원을 다시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고자 마련된 책풍20 사업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605권의 소중함 도서를 기탁했으며, 시는 이달 중 기부처를 최종 선정해 도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책문화 가치 확산 함께라서 프로젝트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키워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어디에서나 책을 접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책의 도시 전주'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전주한지'가 지자체 부문 특산물 브랜드 '한지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전주한지, 대표브랜드 '대상'

지자체 부문 특산물 브랜드 '한지 부문' 수상

전주한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전주한지'가 지자체 부문 특산물 브랜드 '한지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동아닷컴·MBC·한경닷컴이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와 명성의 공신력 있는 브랜드 시상식이다. 대한민국 전역의 지역·특산물·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각

브랜드의 인지도와 차별화 및 신뢰도, 서비스 품질, 충성도 등의 평가 항목에 근거해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주한지는 올해 신설된 신규 지자체 부문 특산물 브랜드인 '한지 부문'의 후보에 올랐으며, 지난 1월 30일부터 14일간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지도와 신뢰도, 브랜드 품질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국내 유수의 한지 도사들을 제치고 '한지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표창·장학금 전달·장애인 화합 한마당 시간 가져



제46회 전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이 전주지역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제46회 전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전주지역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장학금 전달식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2부 행사에서 축하공연과 장기자랑 등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4월 20일로 지정돼 기념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최근 불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가운데 전주시가 등산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에 나섰다.

시는 14일 완산공원 꽃동산 일대에서 산림공원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 캠페인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야외 활동 증가로 우려되는 산불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불법 소각 금지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주요 예방 수칙을 집중 안내했으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예방 행동을 적극 홍보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여름철 대비 주요 방재시설 현장점검

전주시는 14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방재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배수펌프장과 우수지, 예·경보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재해대책기간에 앞서 시설 운영 실태와 사전 정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전주지역 15개 배수펌프장과 6개 우수·저류시설, 예·경보 시설 등으로, 특히 진기틀 배수펌프장과 금학천 배수펌프장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우수지 준설 및 수초 제거 등 사전 정비 추진상황 △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운영 상태 △ 강우계 및 도로수위계 등 예·경보시설 운영 실태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 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수 조치하고,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중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